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2. 3. 4.(금)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부산저축은행 대장동사업 'PF대출' … 尹, '거짓말', '수사뵈주기' 정황

○ 현안대응 TF, 예금보험공사 <2011년,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서 공개,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 주임검사 尹 주장과 달리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 일반대출 아닌 PF대출', 거짓말 정황

○ 김병기 단장, "尹, 본 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 '수사' 대신 '커피 대접' 한건가",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 덮기 위한 지속적인 '거짓말' 정황 곳곳에서 드러나, '대장동 비리의 시작은 윤 후보 봐주기 수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가 2011년 작성된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건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0년 당시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일반대출'이 아닌 'PF대출'로 인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해명과 배치된다. 윤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 및 지난 해 관훈 토론 등에서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결과 보고서(2011, 예금보험공사)

마 PF대출 분류 오류

□ 부동산개발 관련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PF대출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 '10.12월말 현재 외 3개 차주, 734.5억원의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

* PF대출 재분류로 인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BIS비율에 반영

(단위 : 백만원)

차주명	자금용도	대출잔액
	강원도 평창군 용산리 그린빌리지 신축사업	27,948
	인천시 연수구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	30,000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	14,002
	강원도 횡성 블랙나이트 CC 조성사업	1,500
계		73,450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실시하였고,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상당수 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하여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 PF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 3,000만원을 수수한 조 모씨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검찰 수사팀에게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개해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해당 범행은 2015년 수원지검이 재수사하고 나서야 드러났고, 조우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비리 관련 공소장(2015, 수원지검)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범행

'ㅇ ㅇ 은 이를 승낙한 후,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155억 원의 PF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운영의 명의의 법인계좌로 2009. 11. 30.경 3억 3,000만 원, 2010. 2. 10.경 1억 1,000만 원, 2010. 3. 31.경 2억 9,000만 원, 피고인 운영의 ㅣ 명의의 법인 계좌로 3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우형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10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최근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조우형씨 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및 대장동 봐주기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현안대응 TF의 김병기 단장은 "본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에게 '수사' 대신 '커피'를 대접한 보도부터,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을 덮기 위한 윤석열의 지속적인 거짓말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